

러 '북·러조약' 비준절차 돌입...한반도 정세 파장 촉각

푸틴, 조약 비준 법안 하원 제출 "내달 심의"...조약 고리로 한반도 현안에 적극 개입 가능성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러조약 내용에 대해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과 관련, 한반도 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거나 러시아와 서방 간 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는 의미는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이 "조약 문구에 대해서는 꽤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을 고리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최근 북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루덴코 차관은 조약 제4조에 침략 시 상호 원조 문제가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5일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 대해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북러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슬루츠키 위원장은 "우리는 이달 말

까지 차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 사태 뿐 아니라 향후에도 주요 한반도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러시아가 북러 조약을 활용해 자신들의 존재감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양태와 함께 북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대만과 통일 시도시 무력사용 포기 안해"

라이칭더 '신양국론' 맹비난...대만 포위훈련 이틀 만에 또 '경고'

중국 당국이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통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만 그 대상은 외세 간섭과 대만 독립분자들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관실 천빙화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력 사용은 외부 세력 간섭과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소수 분리주의자와 그

들의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절대로 대다수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대만이 중국의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만 대륙위원회(MAC)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 발언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반분열법)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비평화적(무력)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현재 양안 문제의 핵심은 라이칭더 정권이 대만 독립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데 있다"며

대만 민진당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제시한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측하지 않는다는 '신양국론'에 대해서는 "양안의 적대적 대결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정세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대만에 병혹전위(兵禍戰危)를 유발하고 대만 민중 이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혹전위'는 병사는 위태롭고 전쟁은 위험하다는 의미로, 위험하고 끔찍한 전쟁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은 이를 전인 지난 14일 라이 총통의 '신양국론' 발언에 대응해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안 썼다고...모든 유대인 탑승 거부 美 교통부, 독일 항공사에 54억원 과징금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2년여 전 일부 유대인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400만달러(약 5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교통부는 15일(현지시간) 루프트한자가 승객들을 차별했다며 항공사의 시민권 침해에 대해 이런 규모의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전통 탑비를 기리는 행사를 위해 미국 뉴욕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결편을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려는 유대인 승객 128명에게 벌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정통파 유대교 남성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뉴욕에서 출발해 비행하던 중 기장은 일부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기내 통로와 조리실에 모이지 말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루프트한자 보안대에 알렸다.

이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유대인 승객 128명 모두에 대해 연결편 탑승을 거부했다.

미 교통부 조사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개별적 또는 소그룹으로 항공편을 예약해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했다.

미 교통부 조사에 응한 승객들은 루프트한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의 행동에 대해 모든 사람(유대인)의 탑승을 거부했다"며 "공격적으로 눈에 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 지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조치는 승객의 시민권이 침해될 때마다 조사하고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항공업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승객 차별을 부인하고 "루프트한자는 선의, 관용, 다양성, 수용의 대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값 내년 10% 더 상승" 런던금시장연합회

금 가격이 내년엔 지금보다 10%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금 관련 업계가 예측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금 시장을 주도하는 런던금시장연합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LBMA)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 10월 말 금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 높은 온스당 2917.4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BMA는 런던의 금 거래업자들이 참가하는 단체로 1987년에 설립됐다. 세계 최대 거래량을 보이는 런던 금 시장의 거래 동향과 가격을 좌우한다.

설문조사에 임한 이들은 금 무역과 정제, 채굴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나 사업체의 대표들이다. 현물 금 가격은 올해 약 29% 급등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맞아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연합뉴스



15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남성이 중의원 선거 벽보를 쳐다보고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오는 27일 치러진다. /연합뉴스

日 총선 野 단일후보 대폭 줄었다

여야 1대1 대결, 3년전의 3분의1 짧은 선거 준비 기간에 성과 못내

오는 27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과 주요 야당 후보가 1대1로 대결하는 소선거구(지역구)가 3년 전 총선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주요 4개 야당 중 한 당의 후보만 나와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이뤄진 연립여당 후보와 1대1 대결을 벌이는 지역구는 53곳으로 집계됐다.

3년 전 총선에서는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 5개 야당이 전국 289개 지역구의 75%인 217곳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진 지역구가 142곳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야당간 단일화 조율이 미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야권 내 단일화 노력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못낸 이유 중 하나로는 준비 시간 부족이 꼽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 "1대1 구도가 야당 의석을 최대로 늘리는 데에 제일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 26일 만에 투개표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 내각 중 최단기간에 치르는 총선이다.

여기에 노다 대표의 중도 성향 안보정책에 반대한 공산당의 반발도 단일화에 걸림돌이 됐다.

결국 야권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출마 후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344명에 달하면서 3년 전 선거 때의 1051명보다 293명 늘었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이 정해진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